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72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. 22.

발 의 자 : 조승래 · 박용갑 · 장종태
한준호 · 정을호 · 윤호중
강선우 · 이정문 · 민형배
박홍배 · 송기현 · 홍기원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여 의원직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, 현행법에서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·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.

이 경우 의원이 가지는 직이 현행법상 겸직이 허용되는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미 직을 맡은 후 사후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. 의원의 겸직 신고 이후 불가 결정이 내려져 의원이 사직·휴직하거나 휴·폐업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.

이에 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먼저 의장에게 신고하고

검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검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직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3항 중 “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”을 “가지려는 경우에는 이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려고 하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직을 겸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겸직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의원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진 경우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2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검 직 금지) ①·② (생 략)	제29조(검 직 금지) ①·② (현행 과 같음)
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(제3호의 직은 제외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 시 후 1개월 이내에,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<u>가지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 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</u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가지려</u> <u>는 경우에는 이를</u> ----- -----.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⑦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검하 려고 하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직을 겸할 수 없다.</u>
<u>⑦·⑧</u> (생 략)	<u>⑧·⑨</u> (현행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)